



동방 경제 포럼 소식

스가 요시히데 일본 내각 관방장관은 '아베 신조는 동방경제포럼에서 이루어지게 될 푸틴과의 상담에서 러일관계의 온 범위를 이루고 있는 주제들을 논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의 주당에 의하면 상담의 과정에서 금년 12월에 러시아연방 대통령이 답례로서 방일할 가능성이 고려될 것이다. 《IA REGNUM 통신》

동방경제포럼에서는 시베리아횡단철도에 따라 태평양까지의 화물의 길을 500km나 감축할 수 있게 할 '사마르가'국제 교통회랑 프로젝트가 소개될 것이다. 이 프로젝트 범위 안에서 하바로프스크 선도개발구역에서 물류센터도 건축될 것이다. 투자 총 범위는 4,000억루블로 평가된다. 《러시아 세보드냐》

JGS Evergreen사 이가라시 토모유키 대표이사는 '동방경제포럼이 매년 진행됨으로써 러시아당국자들은 극동개발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이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마음이 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2016 동방경제포럼에 대한 자기 인상을 표했다. 《Eastrussia.ru》

(주) 사할린주개발공사의 S. 호토치킨 대표이사는 '동방경제포럼에서 사할린 남부에 있는 코르사코프 항만에서 항구역과 선착장을 건축할 프로젝트를 실현할 데 대한 협정이 서명될 것이다. 프로젝트의 개업비는 19.1억 루블이라'고 밝혔다. 항만 승객 터미널은 2018년 유람선 항해기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1년에 터미널은 12만명의 승객까지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타스 통신》

동방경제포럼에서 하바로프스크 지방은 스베르반크, 로스텔레컴 및 외국회사들과의 협정들을 포함하여 10개의 협정을 서명할 예정이다. 포럼에서 이 지역의 대표자들은 극동에서 생산 클러스터창출, 관민협력 제 문제 및 선도개발구역발달을 논의하는데 참가할 것이다. 《러시아 세보드냐》

캄차카가 동방경제포럼에 참가하는 과정에 대한 브리핑에서 캄차카지방 V. 일류힌주지사는 '동방경제포럼은 극동지역들이 러시아 및 국제수준에 자기들의 경제적 잠재력을 소개하며 투자매력일 제고하기 위한 유일무이한 기회'라고 선언했다. 《Kamgov.ru》

동방경제포럼에서 야쿠티아에서의 휴양 및 요양단지프로젝트가 소개될 것이다. 예측에 의하면 프로젝트는 13억루블로 평가된다. 아발라흐 요양소가 광천수 및 니욕요법을 전공할 예정이다. 《Interfax》

동방경제포럼에서는 캄차카에서 광석을 채취하고 가공하기 위한 채취 및 선광공장 프로젝트가 소개될 것이다. 채취 및 선광공장 프로젝트 건설비는 125억루블이 될 것이다. 이 공장 거동 덕택에 이 지역에서 황금 채취량은 2025년에 와서 1년에 18톤까지 증가될 수 있다. 《Kamgov.ru》